

##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이사회(이사장 권정달)가 2월 6일 11시 안동권씨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권정달 능동장학회 이사장, 권영창 대종회 회장(능동장학회 이사), 권봉도 이사, 권경석 이사, 권순협 이사, 권오형 이사, 권정선 이사, 권영훈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권정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능동장학회는 안동권씨 대종회 정관에 대종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유기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중요로 장학생 명단도 제대로 발표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영창 회장이 취임하고 얼마 전에 권영훈 감사가 애써서 장학회 업무를 대종회에 인계했다. 장학회는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규정으로 단속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권영훈 감사가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대종회에서 맡아서 철저하게 잘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대종회에 와서 이사회를 하니 감개무량하다. 앞으로 종친회도 발전하고 이사회도 친목을 도모하여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기회에 장학금이 확장될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영훈 감사가 결산보고와 감사 보고를 했다. 금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2월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장학금금을 모금하여 파종회와 지역종친회 등의 추천을 받아 5월 정기총회 시에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권오상 사무총장, 권영훈 감사, 권오형 이사, 권영창 대종회 회장, 권정달 이사장, 권정선 이사, 권경석 이사, 권봉도 이사, 권순협이사(왼쪽부터)

권영창 대종회 회장은 장학금 모금 및 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종보 2월호 1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능동장학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세무서와 기재부 홈페이지와 링크시켜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또한 능동장학회 통장을 개설하여 기부 협조를 요청하겠다. 1구좌 2구좌 5구좌 이런 식으로 모을 것이다. 개인, 기업체, 각 종친회도 할 수 있다. 모임 있을 때마다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 종친회가 70여 군데 되는데 지역인재에게 장학금 주는데 40-50군데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장학회 이사부터 출선수범해야 한다. 50억 정도는 돼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100억 목표의가 필요하다. 저는 대종회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능동장학회 를 수 있게 후손들에게 혜택 많이 줄 수 있으면 해서 5

구좌 정도는 하겠다. 시조 태사공 영정을 제작하고 동상을 건립하면 동상 밑에 이름을 새겨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오형 이사와 권정선 이사는 1구좌씩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권영창 회장은 안동권씨 1100년 사업으로 능동제사를 비롯하여 서후면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성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상북도 도지사서와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안동김씨, 의성김씨, 하회류씨, 봉정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 능동에 현수운동으로 시가 50-60만원의 15년생 나무 50그루와 이팝나무 60그루를 확보해 두었다. 현수하면 이름을 지정해줄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대종회 운영 문제와 회관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12시 15분에 회의를 모두 마쳤다. 권영현 편집국장

## 부산종친회 설 세배 오찬회 개최



부산종친회(회장 권영현)에서는 정초(正月初)에 웃어른께 세배를 올리는 어른 공경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2일(음력 정월 초사흘날) 정오에 부산 연산동 '보배밥상' 음식점에서 합동 세배(歲拜) 오찬회를 가졌다. 종친회 산하 장년회, 청년회, 부녀회에서 주관한 오찬회에는 고문, 자문위원 등 일가 어른신을 비롯한 종친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진행은 먼저, 장년회, 청년회, 부녀회 회원 모두가 함께 원로 어른신들께 세배를 드린 뒤에 식탁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맞절을 인사사를 나누었다. 송산(영현) 종친회장은 문안 인사사

통하여 종친 어른들께 지난해 안부를 여쭙고 새해 무병장수와 건강을 축원하고, 종친 회원 가정마다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였다. 주관 단체에서도 영우 장년회장, 부현 청년회장 및 쌍희 부녀회장이 차례로 나와 어른신들께 건강과 수복(壽福)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어진 어른신 덕담 순서는 참석한 고문, 자문위원들께서 차례로 나와, 모임을 마련해 준 데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참여한 종친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고, 만사형통을 바란다는 요지로 덕담이 이어졌다. 특히 송계(길상) 고문은 "세월 따

라 어른을 찾아뵙는 전통 세배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워 합동 세배를 생각해 냈다."며 모임의 연유를 설명하고, 올 한해 축친 어른신과 청장년, 부녀회원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한다는 덕담을 건넸다. 계속해서 송산 종친 회장의 선장으로 다함께 축배를 들고, 준비한 다과와 한정식을 나누면서 서로 정담을 주고받고, 정리(情理)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녀회에서 준비한 양말세트와 권오진 미쁘 대표이사의 치약 선물로 오찬회가 더욱 뜻 깊고 즐겁게 마무리되었다. 권영현 부산 사무국장

## 2024년 부호장공파 제107회 정기총회 개최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주연)는 1월 30일(음력 12월 20일)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종친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종원(宗員)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부호장공파 제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주연 파종회장을 비롯하여 역대 파종회장을 역임한 권병균, 권영건 두 고문,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원로회원, 김의승 전 서울시부시장 부인, 권용수 건국대 교수가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안동 국회의원 입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의승 후보자를 대신하여 부인과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배출, 우리나라 근대사와 안동종친회를 이끌어 왔으며 안동권문의 중심을 잡아주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권기운 사무국장은 작년 7월 21일 문중 소유인 안동시 옥동 밭을 매각하는 등 14건의 경과보고를, 권태욱 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파종회의 수입과 지출, 회계 및 제반사항을 감사한 것을 보고했다. 권감사는 특히 문중 토지 매각 때 권기운 사무국장이 파종회에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마운 뜻에서 박수로 보답하자"며 힘찬 박수를 보냈다. 또 2023년 결산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원개선에서 제8대 부호장공파 신입 회장에 권헌종(權憲宗)씨를, 부회장에 권중대(權重大), 권오엽(權五昶)씨를, 감사에 권태욱(權泰郁), 권오명(權五明)씨를, 현 권기운(權奇運) 사무국장은 유임됐다. 운영위원 10명의 명단은 차후 발표하기로 했다. 권헌종 신입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파종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죽친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안동고, 고려대학교를 졸업

한 후 안동중앙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신입 회장의 임기는 올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만 3년이다. 기타 토의에서 파종회 발전 방향에 관하여 많은 토의를 하였는데 토지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하자, 일원정 열 빚더에 사무실을 신축하자, 은행 이자가 높으니 판매대금을 은행에 예치하자, 파보를 발간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새 파보를 발간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헌임회장은 "집행부 임원이 확정되면 토의한 안건을 검토,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나자 주회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고기능성 겨울 양말 4켤레씩을 선물했다. 참석자들은 안동종친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권헌종 신입 회장, 권오엽 부회장, 권철환 종친회장, 권정수 부회장, 권병균 고문 등 5명이 돌아가면서 건배 제의를 한 후 정담을 나누면서 식사를 끝냈다. 권영건 보도부장

<특별기고> 권인호(權仁浩, 철학박사, 대전대 명예교수, 한국동양철학회 고문)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44)



특히 화답 서경덕과 남명 조식이 끝내 소과(소과:사마사:생원·진사시)만 마치고 과거(문과:대과)와 벼슬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유일(遺施)로서 국가의 정소를 받고도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사로서 성리학뿐만 아니라 노장을 비롯한 제자백가·불교·육왕학(陸王學)·천문지리·의약·병법 등의 학문을 연구하며 후세를 위해 제자를 가르치며 현실정치를 비판하며, 유학의 정치사상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을 바로 잡으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모습은 '오현사'로서 두 스승의 수제자들인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藩, 1517~1578. 시호 文康)과 내암(內菴) 정몽유(鄭蒙維, 1908)처럼 영의정 신원복작(申寬復爵)이 올곧게 본받았다.

조경·허목·송시열) 것이 있으나, 건립 현존 비석은 송시열 것만 있다. 이 신도비에 얽힌 조선 후기 당쟁 정치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것은 김중렬, 『남명학은총南冥學論叢 제1집第一輯 서序』, 『남명학연구론총』 제1집 / 권인호 權仁浩 교수 초정 좌담회, 『남명학파 실학사상과 정치철학의 범고창신』, 한국선비문화연구원, 2023년도 남명학 연구원 학술행사 자료집에 있다. 이들과 함께 산림 출신으로 유명한 학자적 관료의 자취가 많이 나오니 선비들 또한 더욱 학행(學行)에 힘쓰고, 자존과 긍지를 가지고 직분을 다하려는 새로운 기풍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산림정치의 시작은 조식의 산림적 학풍에 의하여 정인홍이 개척한 것이다. 특히 정인홍은 광해군 때에는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지만 끝내 사양하고 재야에 있으면서 상소문을 통해 정치를 지도하고 이끄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산림정치의 기원과 그 전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매천(梅泉) 황현(黃玿, 1855~1910)과 벽사(碧史) 이우성(李佑成, 1925~2022) 등은 광해군 때 이이첨(李爾瞻, 1560~1623) 등이 정인홍의 성명(盛名)을 악용(惡用)하여 정국을 주도한 사실을 말하여 이른바 '폐모살제(廢母殺弟)의 처사(處事)에 대하여도 알파의 책임을 하여, 후세에서는 산림의 처사가 대간(臺諫)이나 왕의 경연(經筵)·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및 세자 서연(書筵)·시강원(侍講院)을 통해 정소의 반열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내암 정인홍을 필두로 하여 용주(龍洲) 조경(趙經, 1586~1669. 시호는 문간(文簡)은 인조반정 후에 유일로 천거되어 인조4년(1626)에 정시문과 정원 출신이다. 1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시호 문정(文正) 동춘당(東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시호 문정(文正)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시호 문정(文正)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 시호 문성(文成),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시호 문순(文純) 등이 있다.남명의 「신도비문(神道碑文)」이 이들 네 사람(정인홍·

있는 실정이다. 광해군 때 정인홍과 인조반정 서인-노론의 이후 산림정치란 걸보습만 비슷하고 내용은 전혀 달리고 있다. 정인홍의 정치적 태도가 산림정치의 기원을 이루었다는 점이 후세의 왜곡된 산림정치의 시초라는 점에서 비록 비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즉 군이 현실정치에 뛰어 들지 않으면서 여론을 일으키고 또는 오도(嚮導)하는 대중조작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정인홍은 당대 최고의 선정관(善政官)이었고, 변방의 무장군졸마저도 올바른 공경 무사한 위엄(威嚴)의 상소문과 구체적 사실 실천, 그가 의병대장으로서 문무 겸전과 출장입상의 구체적으로 정인홍의 현실정치비판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한 것이었다. 즉 민중을 국가의 근본으로 철저히 인식한 점(『서경書經』, 「하서夏書」: 민유방본민惟邦本, 본고방본本固邦寧)이나 그 백성(민중)이 기축옥사(3년간)·인진왜란·정유재란(7년간) 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명살상과 토지전답의 황폐화 등으로 모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던 당시의 도탄(塗炭)에 빠져 참혹한 민중을 '여민(餘民)'으로 표현하여 국가정책이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양(保護養飭)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정인홍의 수많은 사암 상소문: 지축·봉사封事·소疏에서 자주 '위민爲民, 보민保民, 활민活民, 생민生民, 흠민恤民, 애민愛民'의 용어가 많은 것을 볼 때 그의 정치철학은 유교 민본사상에 바탕을 두었고 조선 후기 경제치역학파의 실학자의 주장 내용의 기초를 엮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임진왜란 전후의 참상은 궁극적으로 책임이 왕과 지배세력에 있음을 지적하고 '위(신분과 계급적으로 높은)의 것을 덜어서 아래 것에 더한다(손상익하損上益下); '주역周易』 풍뢰의風雷益(진하손상震下巽上) 폐사卦辭: '익(손)은 위에 것을 덜어서 아래에 보태는 것을 상징하는 때, 즉 군주 자신에게는 박(薄)하게 하고 아래 민중에게 후(厚)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호에 계속)

## 2024 갑진년 제11차 부호장공파 정알레 봉행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헌종)는 2월 14일(음력 정월 초 5일 定日) 오전 11시 안동시 아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

源亭)에서 2024 갑진년(甲辰年) 파조(派祖) 정알레(正諫禮)를 봉행(奉行)하였다. 올 들어 11번째 맞이하는 파조 정알레는

권기병 도유사(都有司)를 비롯하여 권병균, 권영건 고문, 권헌종 파종회장, 권정수 전 부회장, 권영문 전 제례위원장, 권태욱 감사, 권기운 사무국장 등 8명이 참석하였다. 부호장공파는 이날까지 운영위원들을 확정 짓지 못해 임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도유사를 맡은 권기병씨와 권병균 고문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나머지 6명은 평상복(平常服)에 유건을 쓰고 일원정에 모여 놓은 파조 위패를 향하여 재배(再拜)를 하는 등 엄숙하게 정알레를 봉행하였다. 정알레를 마친 임원들은 일원정 방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상음례(相揖禮)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정알레에 참석한 임원들은 시내 송현동 '옛날 흥두개 손칼국수 식당'으로 이동, 화기에 예한 분위기 속에서 들깨칼국수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